

전통·풍류 입은 행정복지센터...마을 초입 '지역 안내자'



<22> 전북 완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완주군 소양면 황윤리에 자리잡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는 소양면 면소재지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소양의 시작과 끝이 되는 위치적 특성을 가진다.

지난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8년 완공됐으며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스페이스모 소속의 이성영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 제19회 공공부문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에 선정됐다. 당시 풍류가 살아있고 전통과 멋이 어우러진 소양면의 지역특성을 테마로 전통미를 표현한 입면계획과 실용적인 디자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지주변은 농경지로 둘러싸여져 있고 대지전면에는 기존 2차로 도로가 있다. 대지 좌측은 농경지와는 3.5m레벨 차이가 있고 우측은 동일레벨의 대지다.

◇풍류와 멋의 고장 특징 살펴

소양면은 완주군 내에서도 풍류와 멋이 특징적인 행정구역이다. 기존의 원주민, 귀농귀촌인, 예술가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특히, 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운영하는 풍류학교가 있다. 또 아원, 송광사, 위봉사, 위봉사 벚꽃길, 원등사, 위봉산성 등 다수의 전통공간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는 장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소양 행정복지센터는 소양의 첫인상이 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단순한 행정지원기능의 건물이라기 보다는 소양을 소개하는, 지역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계획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계획방향은 채와 담, 마당과 정원, 누각과 연못, 전통담장과 전통문양등의 건축적 요소로 구현하여 지역의 전통미를 담아냈다.

외부공간과 건물명도 소양루, 신고로, 해월지 등 지역의 행정구역 이름을 차용하여 마치 소양의 축소판처럼 보이고자 하고, 외부조경은 주민으로부터 기부받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쭉 등을 식재하여 주민이 참여한 완성한 행정복지센터가 됐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이며 일반적인 주민센터와 다르게 강당을 1층에 배치하고 외부마당과 연계하여 실내 및 실외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마당은 별도 행사도 가능하도록 무대를 설치하여 공공공간이 적은 소재지의 시설적 보완도 고려했다.

지상 2층은 면장실, 취미교실, 평생학습교실, 주민자치위원회실 등이 있고, 3층은 체력단련실과 옥상정원을 뒤 주변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계했다. 또한, 누각과 연못, 전통담장, 전통창호의 무늬를 적용한 바닥패턴 등을 설계하여 전통미를 부각시켰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정 업무 담당

소양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황윤리에 면사무소가 설치됐으며, 1915년 소양면에 속한 우정리가 진안군 부귀면에 편입돼 9개 리를 관할했다.

1935년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완주군 소양면이 됐다. 1962년 주민조직이 개편돼 9개 리가 됐다. 1982년 면사무소가 완주군 소양면 황윤리 658-2로 이전됐으며, 2017년 11월 현 장소인 소양면 황윤리 872-1로 이전했다. 소양면의 초대 면장 홍태현은 1946년 1월 10일에 부임해 1954년 2월 22일까지 8년 1개월 동안 소양면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행정업무는 총무, 주민복지, 경제·산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총무팀에서는 공영개발, 상하수도 사업소, 환경위생, 건설교통, 관광체육, 도시개발 등 지역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주민복지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전입신고, 기초생활보장, 보훈, 이웃돕기, 희망복지,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일반, 교육아동복지,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복지 및 민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에 선정된 완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스페이스모 건축사무소 제공’)

원주민·귀농귀촌인·예술가 등

다양한 부류 거주 풍류·멋의 고장

채와 담, 마당과 정원, 누각과 연못

전통문양 등 건축적 요소로 구현

학습·취미교실, 체력 단련·옥상 정원 등

주변 경관도 만끽할 수 있는 시설 설계

이성영 건축사 설계...전북 건축문화상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

2018년 6월 조직을 보면 면장을 중심으로 총무 5명, 주민복지 4명, 산업경제 3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할 면적은 총 94.10km²로, 경지 8.95km²[전 4.22km², 담 4.73km²], 임야 76.0km², 대지 1.36km², 기타 7.79km²이다. 관할 세대 수는 총 3,035세대, 인구 수는 6426명(남 3354명, 여 3072명)이다.

행정구역은 9개 리 45개 분리 77개 반으로 편성돼 있다. 관할 행정구역 내 주요기관은 7개소, 학교 6개교, 기타단체 9개소 등이 있다.

2017년 11월에 이전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는 면장실, 중대본부 외에 대부분 면적을 주민 이용 시설인 북가

페, 취미 교실, 평생 학습실, 체력 단련장 등으로 구성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소양면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외부에 한옥 누각동과 회랑, 향유마당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와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양면에서는 ‘소양면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며, 2017년 제19회 ‘소양면민의 날’을 열고 소양농악단의 풍물놀이와 한마음 민속경기, 축하 공연, 노래 자랑 등으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는 일반적인 행정, 복지 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편의를 위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일보=이종호 기자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랑에서 바라본 루마루.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